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2~63쪽
제재명	기차를 타고	지도서	106~107쪽

1. 홀스트(Holst, Gustav / 1874~1934)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영국의 작곡가로 12세에 작곡을 시작하였으며, 19세에 런던의 왕립음악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다. 1901년 결혼한 후 본 윌리엄스와 함께 영국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음악 교사와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1912년 스페인 여행 중 점성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관현악 모음곡 “행성(The Planets)”을 작곡하였다.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는 ‘군악대를 위한 곡인 모음곡’ 제1번, 관현악을 위한 ‘서머셋 랩소디’,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예수 찬가’, 오페라 “세비트라”, “방황하는 학자” 등이 있다.

2. 모음곡 “행성” 중 ‘목성’

홀스트의 대표작인 관현악 모음곡 “행성”은 하늘에 떠 있는 각 행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여 총 7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5년에 작곡을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했는데, 이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이 제4곡 ‘목성’이다. ‘쾌락의 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곡은 전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구성의 변화가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3부 형식 안에서 장쾌하고 호방한 네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곡이 전개된다. 홀스트 곡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연한 악식을 가진 가곡풍의 선율로 후에 작곡가 자신에 의해 가곡으로 만들어졌다.

출처 진희숙,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청아출판사, 2013, 77쪽.

3. 라흐마니노프(Rakhmaninov, Sergei Vasileich / 1873~1943)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소품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이다. 1905년 라흐마니노프는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가 되었고, 이어 미국 순회 연주에서 호평을 받았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 후 라흐마니노프는 망명길에 올랐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그의 여생을 보낼 가정을 꾸렸으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과 몇몇 친구들 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다.

출처 다음백과

4.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라흐마니노프가 슬럼프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니콜라이 달에게 헌정한,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협주곡으로, 낭만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며 장중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러시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악장은 낮은 음역대의 피아노 독주로 시작하는데 점점 크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켜며 피아니시모(*pp*)로 시작하여 점점 크게 표현하고 있다. 제1주제가 강렬한 켜림으로 진행되다가 제2주제가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여러게 등장했다가 점점 웅장한 금관의 화음 연주와 함께 점점 음량이 커지며 발전부로 간다. 켜림의 대비가 돋보이는 곡이다.

Moderato (♩ = 66)

출처 다음백과

베트남 관련 자료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6~69쪽
제재명	여러 나라의 노래	지도서	110~113쪽

▶ 베트남

1. 개요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수도는 하노이이고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으며,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331,210km²로 남한의 3.3배 크기이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길이는 1,650km에 이른다.

기본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 공산당이 나라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주도한다. 인구는 약 9,015만 명(2012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6%인 비엣족과 53개의 소수 민족, 100만여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베트남어로, 발음의 길이와 높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6성조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어 외에도 네 종류의 소수 민족 언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문자 꾸옥 응어는 중국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와 사용하던 과거의 문자를 17세기 말 프랑스의 선교사가 라틴 문자로 적은 것에서 유래하였다.

출처: 곰돌이 ∞, “베트남에서 보물찾기”, 아이세움, 2009, 22~28쪽.

2. 문화

베트남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비엣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타이, 크메르, 말레이 계통의 소수 민족 등으로 구성된다. 종교는 대부분의 주민이 불교를 믿고, 유교와 도교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의상은 베트남의 민속 의상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여성들이 입는 아오자이이다. 아오자이는 현재 명절이나 결혼 등의 행사, 일상복 등으로 입는다. 흰색 아오자이는 베트남 전역에서 여학생의 교복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고, 학생 이외에는 다양한 색상의 원단으로 아오자이를 만들어 입는다. 예전에는 성별 구분 없이 아오자이를 입었으나 현재에는 여성용 의복으로 한정된다. 전통문화 행사에서는 남성이 입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베트남의 관광 명소

- 노트르담 성당: 프랑스 통치 시대인 1880년에 세워진 호찌민시의 최대 성당이다.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운반해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건축 양식을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
- 빈응이엠사: 베트남의 전통적인 불교 건축 양식과 현대식 건축 양식을 구사해 지은 남부 최대 규모의 사원이다.
- 하롱베이: 영화 “인도차이나”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세계적 명승지이다. 해상 석회 기암절벽과 에메랄드 빛의 바닷물이 절경이다.



▲ 노트르담 성당



▲ 빈응이엠사



▲ 하롱베이

케냐 관련 자료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6~69쪽
제재명	여러 나라의 노래	지도서	110~113쪽

■ 케냐

1. 개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케냐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과 더불어 동아프리카 공동체인 EAC의 회원국이며 일곱 개의 주와 하나의 행정구로 국가 행정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케냐는 1977년부터 동물의 사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물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밀렵꾼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공업과 서비스 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커피·차·축산 등 농업 분야가 주 수입원이며, 경제 인구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뚜렷한 광물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만,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 외화 소득을 내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편집부, "저스트고(Just go) 국가별 여행 정보", 시공사.)

2. 문화

적도를 걸치고 있어 해안은 무더운 열대 기후이며 내륙 지방은 고지대로 건조한 기후이다. 내부일수록 건조하고 해안에는 열대성 기후가 나타난다.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방에 킬리만자로산이 있어 그 일대는 서늘하다. 남반구에 위치한 케냐는 북반구 나라들과 비교할 때 여름, 겨울의 날씨가 바뀌어서 나타나므로 6~8월이 겨울이다. 그러나 케냐의 겨울은 동북아시아의 겨울과 매우 다른 풍경이다. 눈이 내리지 않으며 날씨 또한 영하로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다. 단지 일교차가 매우 심해 새벽과 밤에는 매우 쌀쌀하게 느껴지며, 낮에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정도이다. 케냐는 적도에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16도이다. 기독교가 약 83%를 차지하고 이슬람교, 기타 종교와 또한 극소수의 힌두교도와 정령 신앙도 있다.

3. 케냐의 지형적 특징

인도양에 면한 지역은 저지대를 형성하지만,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져 고원을 이룬다. 수도인 나이로비는 1,676m의 고원에 있다. 이런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코끼리, 사자, 기린, 얼룩말 등의 세계 야생 동물의 보고이다. 고원 지대에는 나이로비 국립 공원 등과 함께 각지에 야생 동물의 보호 지구가 있으며 세계적인 자연 보호 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 킬리만자로산



▲ 나이로비 국립 공원



▲ 나이로비 의사당

푸에르토리코 관련 자료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6~69쪽
제재명	여러 나라의 노래	지도서	110~113쪽

푸에르토리코

1. 개요



푸에르토리코는 ‘부유한 항구’라는 뜻으로, 수도는 산후안(San Juan), 본 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인도 제도(카리브해)의 대(大)앤티리스 제도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이다. 1493년부터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1898년 미국이 점령하여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52년 국방·외교·통화를 제외한 내정을 이양받아 미국의 자치령이 되었다.

2. 문화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대부분은 백인(76.2%)이며 가톨릭교도(85%)이다. 언어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풍속이나 습관에는 근본적으로 스페인의 색채가 짙게 배어 있으나 미국의 영향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3. 미국의 속령 푸에르토리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전하여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영토가 되어 군정이 시작되었고, 1917년에 미국의 준주가 되어 주민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1946년 제한된 자치 정부가 승인되어 1948년부터 국민 투표로 총독을 선출하였으며, 1952년에는 자치 헌법을 제정하였고 국방·외교·통화를 제외한 내정을 이양받아 미국 자치령이 되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또한 푸에르토리코 내에서도 미국의 완전한 주(州)로 승격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1967년, 1993년, 1998년, 2008년에 치른 국민 투표에서 자치령으로 남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2012년 11월 6일에 치러진 국가 지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54%가 찬성했고, 그중 61%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카리브해



▲ 산후안 스페인 건축 양식



▲ 엘모로 요새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5, 95쪽.

네덜란드 관련 자료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66~69쪽
제재명	여러 나라의 노래	지도서	110~113쪽

■ 네덜란드

1. 개요



유럽의 북서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동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벨기에, 서쪽과 북쪽은 북해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 입헌 군주국이며, 낙농업과 원예업을 기반으로 유럽의 부국으로 부상했다. 네덜란드라는 국명은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실제 국토의 50%가 해수면보다 낮아 폴더(polder)라는 형태의 해안 간척지로 개발되었다. 마을마다 폭이 넓은 독으로 물을 막고 있으며 전국이 거미줄 같은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북해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의 힘을 이용해 풍차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꽃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매년 3~5월이면 네덜란드 전역에 튤립과 수선화 등의 꽃들이 만발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편집부, “저스트고(Just go) 국가별 여행 정보”, 시공사.)

2. 문화

네덜란드인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일찍이 렘브란트, 반에이크 형제, 고흐 등의 화가가 배출되었으며, 도시 대부분에 미술관이 있다. 또한 기록 영화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1년의 반이 겨울인 데다 산이 없다는 자연조건 등으로 축구, 스케이트, 자전거 경기 등이 인기가 있다. 네덜란드 축구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다른 나라 프로 축구 리그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많은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마을 곳곳을 연결하는 운하가 열면 국민 누구나 스케이트를 즐기며, 해가 잘 나지 않는 날씨 때문에 여름이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해변으로 휴가를 떠난다.

출처 두산백과

3. 네덜란드와 풍차

네덜란드는 낮고 평평한 땅 위로 라인강, 마스강, 스텔데강 등 세 개의 큰 강이 흐르고, 그 강 하구에 수많은 작은 강들이 얹혀 있어서 물로부터 땅을 지키기 위해 댐이나 제방을 많이 쌓았다. 그 위에 생겨난 도시가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으로,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 이름은 댐이란 뜻의 ‘담’으로 끝난다. 전체 국토의 $\frac{1}{5}$ 이 간척지여서 흔히 세상을 만든 것은 신이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을 퍼낼 수 있는 조절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풍차이다. 13세기에 처음 등장한 풍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로 방아를 찧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쓰임새가 많아져 오늘날과 같이 큰 규모로 제작되었고, 기술도 발달하여 밀가루나 종이를 만들고 기름을 짜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출처 곰돌이 ∞, “네덜란드에서 보물찾기”, 아이세움, 2007, 13~17쪽.



▲ 네덜란드의 국화(國花) 튤립



▲ 잔세스칸스 풍차 마을



▲ 암스테르담 왕궁

악기의 주법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0~71쪽
제재명	학교 가는 길	지도서	114~115쪽

1. 멜로디언

멜로디언은 오르간과 같이 리드를 이용한 건반 악기이면서 리코더처럼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낸다. 즉, 건반이 있는 본체와 호스로 연결된 마우스피스로 입으로 불면서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낸다. 연주할 때의 오른손 운지법은 피아노, 오르간과 같으며 악보의 음표대로 숨을 불어 넣으며 연주해야 하므로 숨쉬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 취구를 살짝 물고 호흡이 일정하도록 조절한다.
- 손목이나 팔에 힘을 주지 않는다.
- 같은 음이 반복될 경우는 건반을 누른 채 텅잉으로만 연주할 수도 있다.



손가락은 그대로 누르고 텅잉만 한다.

출처 두산백과

2. 큰북

- 북을 정면으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선다.
- 오른손으로 북채를 가볍게 친다.
- 북채가 닿는 위치는 북면 중심부에서 약간 윗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채는 직선으로 치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곡선을 이루며 위아래로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작은북

- 양손에 쥔 북채는 간격이 5cm 정도, 각도는 90도가 되게 한다.
- 북채는 위에서 약 $\frac{2}{3}$ 되는 지점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쥐고 나머지 손가락은 가볍게 붙여 준다.
- 양손에 북채를 쥐고, 손목을 이용하여 가볍게 친다.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2~73쪽
제재명	상모야 돌아라	지도서	116~117쪽

1. 창작 국악 관현악 '축제' 3악장 감상 해설

전통 장단을 주제로 한 '축제'는 1997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초연된 이후 대표적인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연주되고 있다. 3악장으로 이루어진 '축제'는 각각 '경쾌하고', '조용하고', '신명나는'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풍물 가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금, 피리, 소금 등 관악기의 주제 선율과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타악기 소리가 간결하면서도 촘촘하게 짜여 있다. 굿거리, 동살풀이, 별달거리, 휘모리 등의 장단을 쉽고 재밌게 풀어 듣는 이들 누구나 축제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게 진행된다.

1악장에서는 굿거리와 동살풀이장단, 2악장에서는 굿거리, 3악장에서는 별달거리와 휘모리장단이 주축을 이루며 마지막 부분에서 흥의 절정을 이끌어 내는 태평소 가락이 멋스럽게 울려 퍼져 마무리가 산뜻하고,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긴다. 전통 국악기의 신명나는 리듬으로 놀이판이 연상되는 이 작품은 마치 굿판에서 즉흥 연주로 판을 넘나들던 민속 예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역동적인 곡이다. '신풀이'라는 별도의 소재목을 가지고 있는 3악장은 팽과리, 장구, 북 등의 타악기에 힘 있는 태평소를 가미하여 축제의 현장을 신명나게 표현하고 있다.

출처 국립극장(<https://www.ntok.go.kr>),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해설을 참고하여 재구성



출처 이은경, '국악 관현악을 위한 '축제'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 논문, 2001, 35쪽.

2. 창작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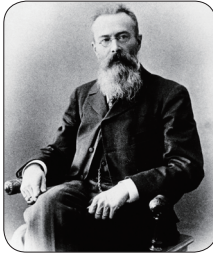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놀이 형식으로 갖춰진 축제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나라 전체에서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축제들이 계절마다 있고, 우리의 놀이 문화 형식이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보면 수많은 축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이 곡은 어느 놀이의 형식을 갖추었다기보다 그 분위기를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출처 KBS 수원 아트홀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창단 연주회 안내문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4~75쪽
제재명	음악으로 듣는 이야기	지도서	118~119쪽

1.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 Nikolay Andreyevich / 1844~1908)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주로 러시아의 민화, 전설, 발라드, 동화 등에서 영감을 얻어 오페라와 관현악곡을 작곡했다. 그는 관현악 편성의 거장으로, 그의 음악은 우아하고 세련되며 이국적인 색채로 화려하면서도 러시아적 향취가 짙게 배어 있다. 그는 15편의 오페라를 남겼는데, 대표작은 “황금 닭”, “황제의 신부”, “삿코” 등이 있다.

출처 백남옥, “OPERA 366”, 한울아카데미, 2011, 88쪽.

2. 관현악 모음곡 “세에라자드”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왕비가 이야기한 전설에 의거하여 4악장으로 된 관현악 모음곡 “세에라자드”를 완성했다. 이 모음곡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선율은 매우 친숙하고 아름답다. 다양한 악기의 음색도 교묘하게 발휘되어 자칫하면 단조로워지기 쉬운 악상을 돋보이게 하면서 관현악법 대가의 면목을 유감없이 나타낸 걸작이기도 하다. 곡은 이른바 표제 음악의 일종이라고 여겨지나, 특별히 표현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각 악장의 표제도 작곡가 자신에 의해 명기된 것이 아니라 음악 애호가들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출처 편집부, “애호가를 위한 클래식 음악 안내 최신 명곡 해설”, 삼호 ETM, 2012, 103쪽.

3. 로시니(Rossini, Gioacchino Antonio / 1792~1868)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는 다수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칸타타, 피아노곡, 관현악곡, 실내악곡 등 여러 방면의 작품들을 작곡하였으며 특히 “세비야의 이발사”, “신데렐라”, “세미라미데” 등의 희가극이 유명하다. 부모가 모두 예술인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을 주로 공연장에서 보냈으며 14세 때 볼로냐의 음악협회에 들어갔다. 그는 당시 인기를 누리던 장르인 이탈리아의 희가극 오페라 부파에 몰두하여 첫 오페라 부파 “결혼 어음”을 만들었고 베네치아에서 공연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로마에 초대받은 그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공연하여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마지막 오페라 “빌헬름 텔”은 민족주의와 자유라는 고상한 주제와 고상한 음악을 사용한 작품으로 파리 청중들과 파리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출처 다음백과

4. 오페라 “빌헬름 텔”

로시니가 33세이던 1829년에 완성한 오페라 “빌헬름 텔”은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히 실러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희곡 “빌헬름 텔”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이다. 스위스의 민족적 영웅 빌헬름 텔의 전설을 다룬 실러의 작품을 재탄생시켰다. 4막 구성의 대규모 오페라로 재탄생한 이 장대한 서사시는 파리에서 ‘기욤 텔’이라는 이름으로 초연된 직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역 전승 문화재

단원명	4. 함께 나누며	교과서	76~77쪽
제재명	지역 전승 문화재	지도서	120~121쪽

1. 봉산 탈춤(국가 무형 문화재 제17호)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과 사리원에 전승되던 탈놀이로, 5월 단오에 연희되는 세시 풍속의 하나이다. 주로 농민과 장터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아의 경사스러운 행사나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도 특별히 탈놀음을 했다고 한다. 1915년 이후에는 군청이 사리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주된 무대가 봉산에서 사리원으로 옮겨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향토 문화 부흥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공연되기도 하였다.



2. 북청 사자놀음(국가 무형 문화재 제15호)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 정월 대보름마다 놀던 탈춤이다.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자를 내세운 것이 색다른데, 동물의 왕인 사자가 한바탕 춤을 추면 나쁜 귀신과 재앙을 쫓고 마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 탈춤과의 차이는 통소를 두 개, 많이 쓸 때는 여섯 개까지 쓰면서 독특하고 흥겨운 가락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사자놀이를 할 때 사자가 집집마다 돌며 춤추면서 놀아 주면 사람들은 고맙다는 표시로 돈과 곡식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놀이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은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3. 양주 별산대놀이(국가 무형 문화재 제2호)

경기도 양주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이다. 별산대라는 것은 별도의 산대놀이라는 뜻이며, 산대는 탈놀음 등을 포함한 여러 잡희를 노는 무대나 무대 배경을 말한다. 탈놀음은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음악을 울리면서 공연 장소까지 행진하는 길놀이와 관중의 무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놀이에는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늙고 젊은 서민들이 등장하여 풍자하고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 준다.



4. 강릉 단오제(국가 무형 문화재 제13호)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음력 5월 5일인 단오를 전후하여 치러 온 전통적인 민속 축제이다. 국가 무형 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강릉 단오제는 대관령 국사성황을 비롯해 대관령 산신과 대관령 국사여성황을 신앙 대상으로 하여 유교식 제례, 무당굿, 탈놀음과 더불어 단오 민속과 놀이 및 난장이 어우러진 행사이다.



5. 강강술래(국가 무형 문화재 제8호)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 지방에 널리 분포하여 전승되고 있는 집단 놀이로, 고대의 원시적인 춤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풍요 기원의 제의적 성격이 강하던 것이 점차 세속적인 놀이·노래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여자들이 옷을 바꿔 가면서 강강술래를 돌아 적군으로 하여금 우리 편의 군사가 많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강강술래는 추석, 정월 대보름, 백중, 유두 등 보름달이 뜨는 밤에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이다.



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국가 무형 문화재 제71호)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열리는 마을굿이다. 매년 음력 2월 1일과 2월 14일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本鄕堂)에서 열리는 굿으로,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되었다. 바다의 평온과 풍작 및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7. 동래 학춤(부산 무형 문화재 제3호)

부산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3호로 부산 동래 지방에서 전승되는 학의 동작을 표현한 춤이다. 동래는 예로부터 지형이 학의 모습과 같다 하여 학과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학이 떼를 지어 서식하여 학의 모습과 동태를 잘 관찰할 수 있어 동래 고을의 주민들이 맑고 우아한 학의 움직임을 소박한 민속적인 춤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갓에다 흰 도포, 바지저고리, 버선과 미투리를 신고 춤추며, 반주 악기는 팽과리와 장구, 북, 징 등 농악 편성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이 주로 사용된다.



8. 하회 별신굿 탈놀이(국가 무형 문화재 제69호)

국가 무형 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서 전승되어 오는 탈놀이이다. 하회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우환이 있을 때마다 특별하게 당제를 지냈는데, 이때 탈놀이가 함께 행하여져 왔다. 평민들은 탈놀이를 통해서 지배 계층인 양반을 풍자함으로써 억눌린 자신들의 감정을 발산하였다. 특히 하회라는 양반 마을에서의 탈놀이는 양반에 대한 서민들의 갈등과 저항을 줄여 주면서 화합의 장을 이끄는 기능을 하였고, 이 외에도 파계승을 통해 불교의 타락상과 종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고달픈 일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어 정신적 위안을 삼았다고 한다. 등장인물로는 주지승, 각시중,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부네, 백정, 할미 등이 있다.



출처 국립국악원 국악사전,
문화포털 문화예술백과